



인공지능으로 특허·기술정보 쉽게 분석한다

- 지식재산처, 3개년에 걸쳐 지식재산정보분석플랫폼(IPOP) 구축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정보 분석 플랫폼(IPOP)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식재산 자료 분석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방대한 지식재산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가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지식재산처는 IPOP(IP One Portal)이라는 명칭으로 지식재산처 내부 및 대민용 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부 장은 특허기술 동향 분석, 기술유출 실태조사 등 자료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자료 분석 보조 도구로 활용되며, 대민 장은 여러 곳에 산재한 지식재산 정보를 사용자의 정보 활용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장 구축 방향과 주요 기능을 공유하고, 실제 자료 분석 업무 담당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분석 장은 방대한 특허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지식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착수보고회 개요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현철 (042-481-5134)
		담당자	사무관	박진표 (042-481-5077)

□ **착수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5.27.(수) 14:00~15:30 / 대전청사 7층 멀티미디어센터
- (참 석 자) 지식재산정보국장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처 내 관계자, 처 내·외 플랫폼 수요 부서 및 기관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지식재산정보분석플랫폼 구축 추진 방향 발표, 사업 추진 간 쟁점 및 주요 고려 사항 논의

시 간	내 용
14:00~14:05 (05')	○ 인사 말씀
14:05~14:35 (30')	○ 플랫폼 구축 추진방향 발표
14:35~15:25 (50')	○ Q&A
15:25~15:30 (05')	○ 마무리 말씀

□ **향후 일정**

- 분석플랫폼 분석·설계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8월)
-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설계 결과 보완 및 사업 중간 보고 (~10월)
- 내부 플랫폼 분석·설계 완료 (12월) 및 대민 플랫폼 개통 ('27.1)